

정기지표

Kstat Report

2020년 6월 18일

케이스탯리서치 6월 정기지표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- 대한민국 '옳은 방향' 가고 있다, 68%로 높은 수준 유지

경제 방향성 평가

- 경제 방향성, '옳은 방향' 53%로 5월에 비해 소폭 하락

정부 신뢰도

- 정부, '신뢰한다' 62%로 긍정평가세 유지

정부정책 만족도

- 정부정책, '만족한다' 54%로 전 달에 비해 3%p 하락

사회통합성 평가

- 우리 사회, '분열되어 있다' 77%

개인 행복도

- 어제 하루 '행복했다' 49.6% vs '걱정 많았다' 50.4%
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-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62%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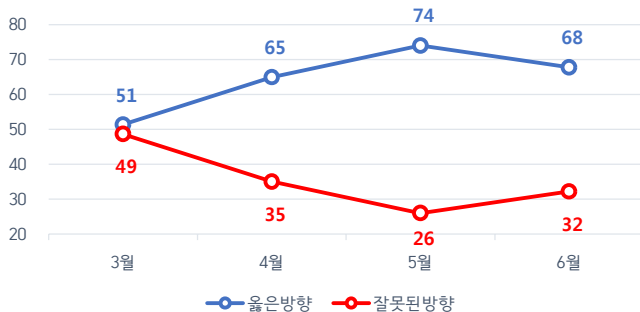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대한민국 '옳은 방향' 가고 있다, 68%로 높은 수준 유지

- ▶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는 지난 4월, 5월에 이어 6월에도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'옳은 방향'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
-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,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'옳은 방향' 68%, '잘못된 방향' 32%로 긍정의견이 다수를 차지함
- 5월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이 '옳은 방향'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음
- ▶ 거의 모든 계층에 걸쳐 '옳은 방향'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온 가운데, 특히 높은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블루칼라 계층임
- ▶ 이에 비해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은 보수층에서 유일하게 높게 나타남
 - 보수층은 지난 5월 조사에서는 '옳은 방향' 51% vs '잘못된 방향' 49%로 옳은 방향이 근소하게 우세했었음
 - 그러나 6월 조사에서는 '잘못된 방향'이 60%로 높아지면서 부정의견이 우세해짐
- ▶ 또한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60대이상 △충청, PK △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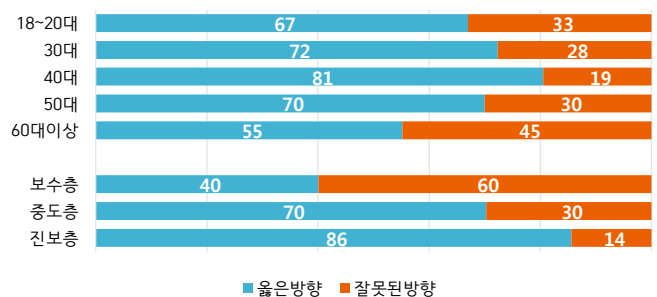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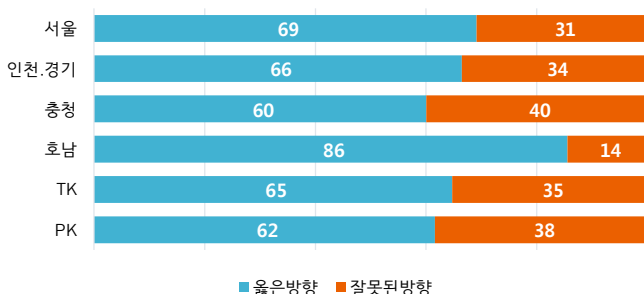
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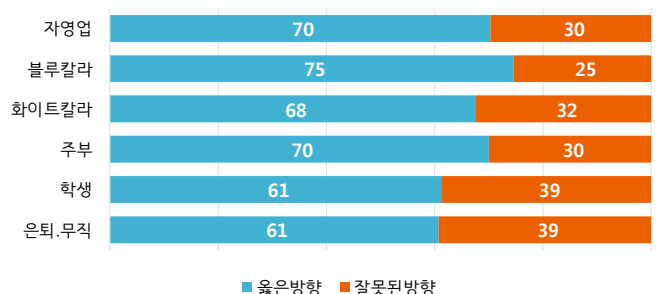
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- ▶ 6월 들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, 북한의 도발적 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 보수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▶ 7월에도 이러한 두가지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, 보수층 외 다른 계층의 반응이 주목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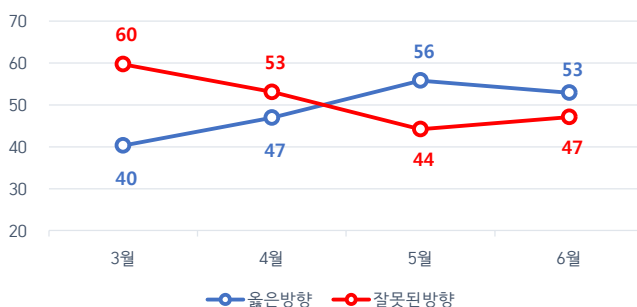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

※ 경제 방향성, '옳은 방향' 53%로 5월에 비해 소폭 하락

- ▶ 경제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은 '옳은 방향' 53% vs '잘못된 방향' 47%로 팽팽한 양상을 나타냄
 - 지난 5월에는 '옳은 방향' 56% vs '잘못된 방향' 44%로 격차가 12%p였으나 6월 들어 격차가 6%p로 줄어들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경제방향성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, '옳은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40대, 50대 △중도층, 진보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호남 △자영업, 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주부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 - 30대의 경우 '옳은 방향'과 '잘못된 방향'이 공히 50%로 조사됨
- ▶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충청, TK, PK △학생 계층으로 나타남
- ▶ 지난 5월과 비교해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PK이고, 6월 들어 새롭게 부정평가 우세 대열에 합류한 계층은 △충청과 TK △학생 계층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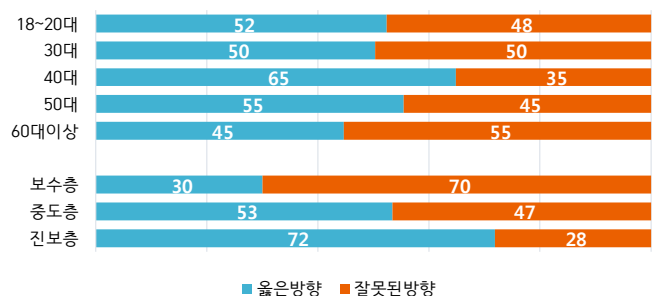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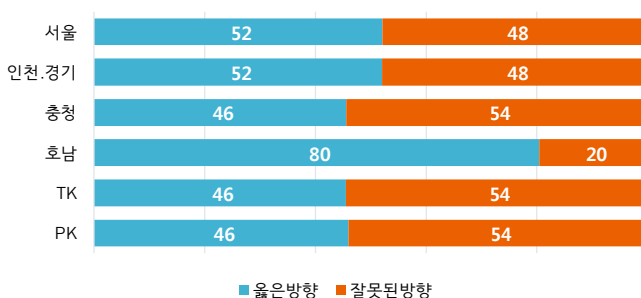
6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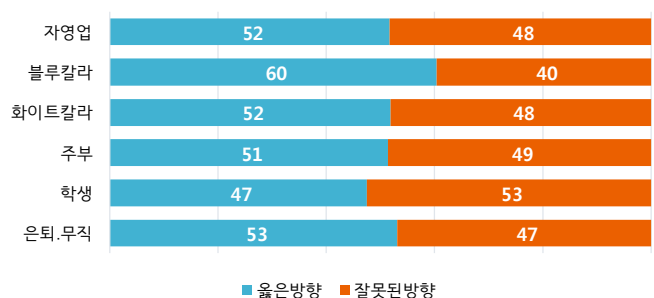
6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6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- ▶ 정부의 3차 추경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함
 -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개선될 것인지, 악화될 것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3차 추경안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보임
- ▶ 국회에서 3차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되고 규모가 최종 확정된 이후,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주목되는 지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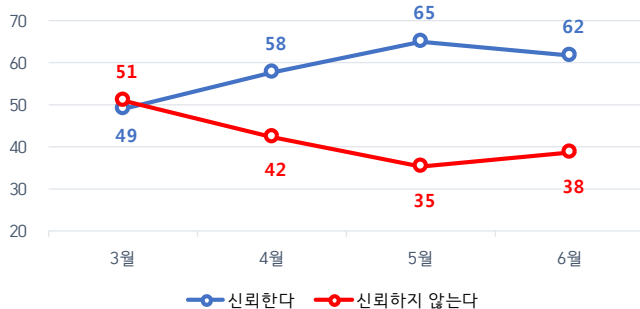
▣ 정부 신뢰도

※ 정부, '신뢰한다' 62%로 긍정평가세 유지

- ▶ 정부 신뢰도는 지난 4월, 5월에 이어 지속적으로 긍정평가가 우세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
 - 정부를 '신뢰한다'는 의견은 62%이고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의견 38%로 나타남
 - 5월에 비해 '신뢰한다'는 의견이 65%에서 3%p 하락했으나 여전히 긍정평가 흐름이 우세함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'신뢰한다'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
 - '신뢰한다'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30대와 4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블루칼라와 주부 계층임
- ▶ 보수층은 지난 5월 조사에서도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의견이 61%로 우세했는데, 이번 조사에서는 67%로 규모가 증가함
 - 충청권은 5월 조사에서 '신뢰한다'는 의견이 64%로 높았으나, 이번 조사에서는 49%로 하락해 부정평가가 소폭 우세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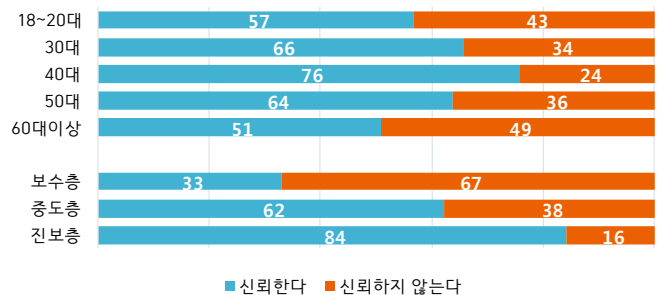
정부 신뢰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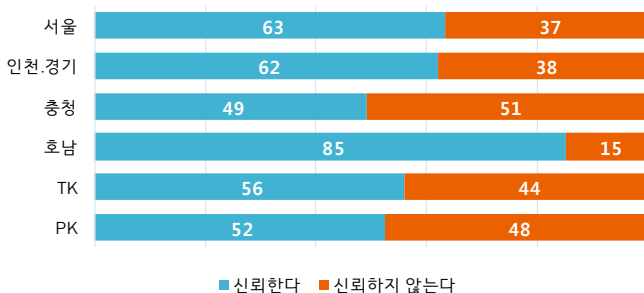
6월 정부 신뢰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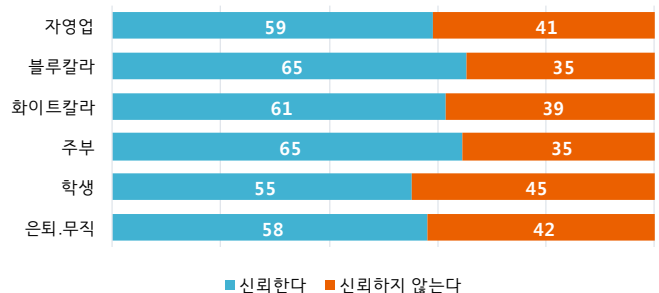
6월 정부 신뢰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6월 정부 신뢰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- ▶ 당초 6월의 정부신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던 점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등교 개학 등의 정착 여부였음
 - 정부의 완화된 방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정부신뢰도는 높아지고, 반대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신뢰도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음
- ▶ 지난달 코로나19는 하락과 증가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해 정부의 완화된 방침에 대한 평가도 홍보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
- ▶ 7월 정부 신뢰도 역시 코로나19 하락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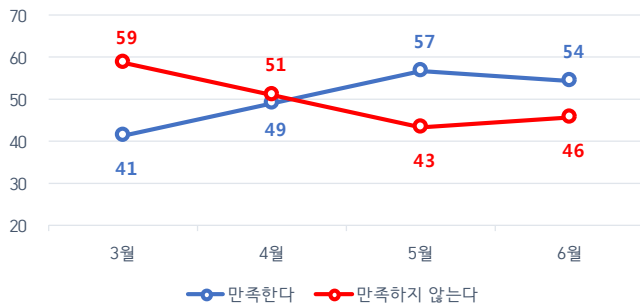
▣ 정부정책 만족도

※ 정부정책, '만족한다' 54%로 전 달에 비해 3%p 하락

- ▶ 정부정책 만족도는 5월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'만족한다'는 의견이 다소 우세함
 - '만족한다'는 의견은 54%이고, '만족하지 않는다'는 의견은 46%로 조사됨
 - 5월에는 양 의견간 격차가 14%p였으나, 이번 달에는 9%p로 소폭 줄어들음
- ▶ '만족한다'는 긍정적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30대, 40대, 50대 △중도층, 진보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호남 △자영업, 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주부 계층임
 - 이들 계층은 정부 관련 질문 대부분(경제방향성, 정부신뢰도) 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, 현 정부에 비판적인 계층으로 보임
- ▶ '만족하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충청, TK, PK △학생, 은퇴.무직 계층으로 나타남
 - 앞서 경제방향성 평가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부정평가가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TK, PK이고, 6월 들어 부정적 의견 우세 대열에 새롭게 합류한 계층은 △충청 △학생, 은퇴.무직 계층임
 - 은퇴.무직자는 경제방향성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으나, 정부정책 만족도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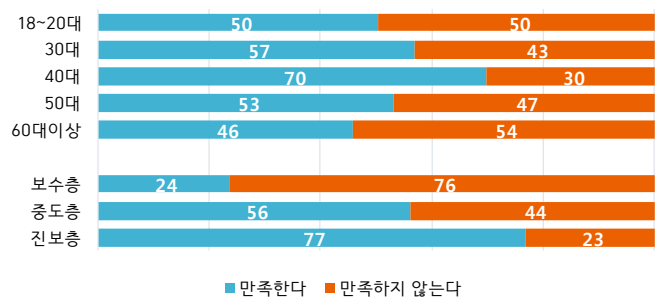
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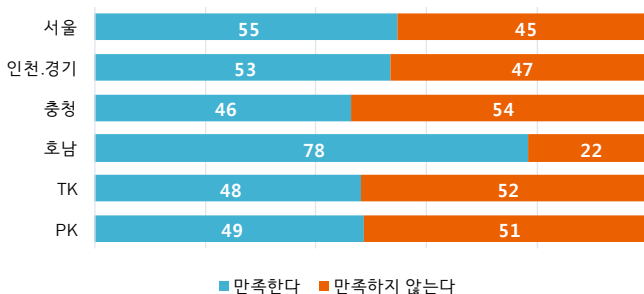
6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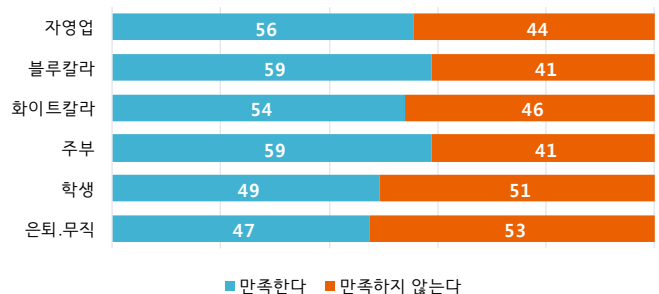
6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6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- ▶ 6월까지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서 거의 모든 평가의 기준점 역할을 해 왔으나 다음 달에는 북한 변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임
- ▶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이 7월 사회지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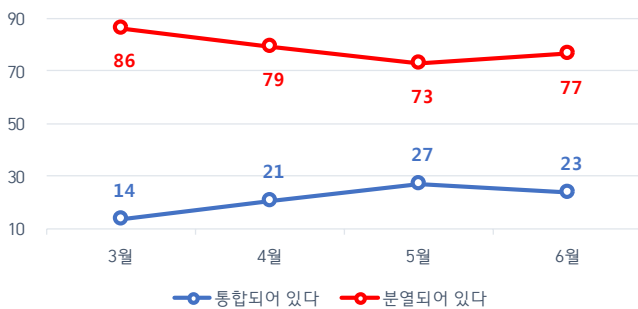
사회통합성 평가

우리 사회, '분열되어 있다' 77%

- ▶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매우 확고한 것으로 보임
- ▶ 사회통합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'분열되어 있다'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 - '분열되어 있다'는 응답은 3월 조사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, 6월에 다시 소폭 상승함
- ▶ '분열되어 있다'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임
- ▶ '통합되어 있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18~20대 △호남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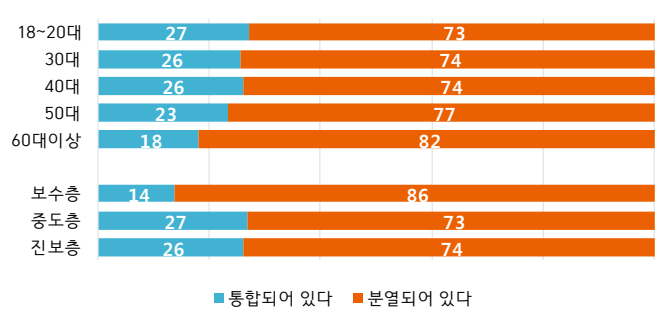
사회통합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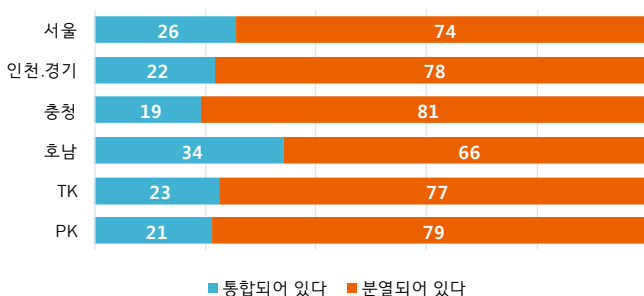
6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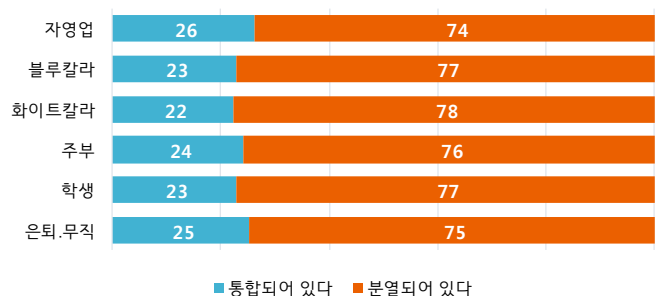
6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6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- ▶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월 지표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 북한 변수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, 북한 변수가 추가될 경우 사회통합성 지표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
 -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진보 vs 보수 구분의 기준점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척도임
 - 그동안 잠잠하던 북한 변수가 북한의 강경발언과 도발로 이어지면서 급격히 부각하고, 사회분열을 확대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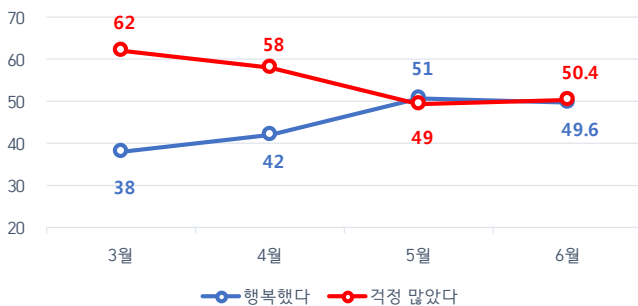
개인 행복도

※ 어제 하루 '행복했다' 49.6% vs '걱정 많았다' 50.4%

- ▶ 6월 개인행복도는 '행복했다'와 '걱정 많았다'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
 - '행복했다'는 응답은 49.6%이고,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은 50.4%로 조사됨
 - 지난 5월에 이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팽팽한 응답이 재현됨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'행복했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서울, 호남 △자영업, 화이트칼라 등임
- ▶ 이에 비해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3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 △인천.경기, 충청, TK, PK △주부, 학생, 은퇴.무직 계층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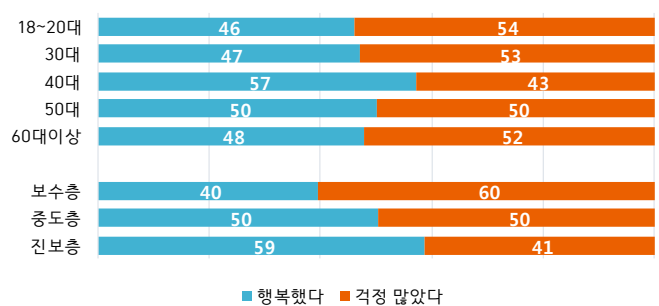
개인행복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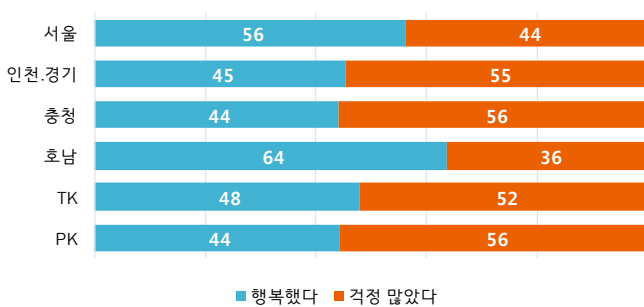
6월 개인행복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 조사, 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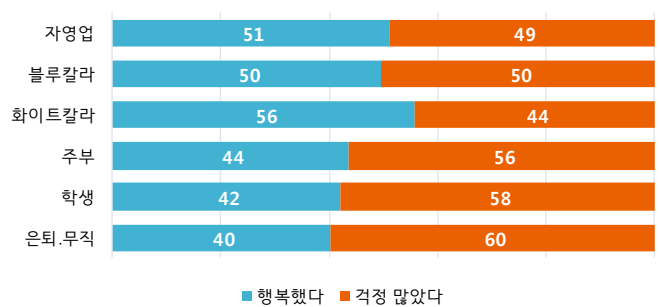
6월 개인행복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 조사, 단위:%)



6월 개인행복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 조사, 단위:%)



- ▶ 매달 '행복했다'는 의견이 높아지다가 6월에는 증가세가 멈춤
 -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차 확산되는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- ▶ 7월에는 북한 변수가 추가되는데, 북한 변수가 개인의 행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지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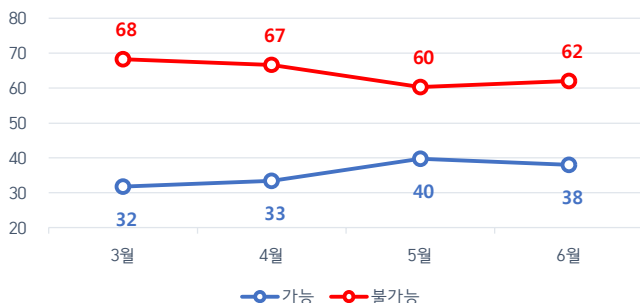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※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62%

- ▶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이른바 '계층상승의 사다리'가 부러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
- ▶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3월 이후 지금까지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'불가능하다'는 부정적 응답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음
 - 6월 조사에서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'가능하다'는 응답은 38%이고, '불가능하다'는 응답은 62%로 조사됨
- ▶ 지난 5월과 동일하게 학생 계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'불가능하다'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남
 - 학생 계층은 5월에도 '가능하다'는 응답이 52%로 소폭 우세했고, 이번 달에도 54%로 우세한 흐름을 유지함
- ▶ '가능하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18~2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자영업 등임
 - 이 역시 5월 조사와 같은 흐름임
- ▶ '불가능하다'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30대, 40대, 50대 △보수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PK △주부, 은퇴.무직자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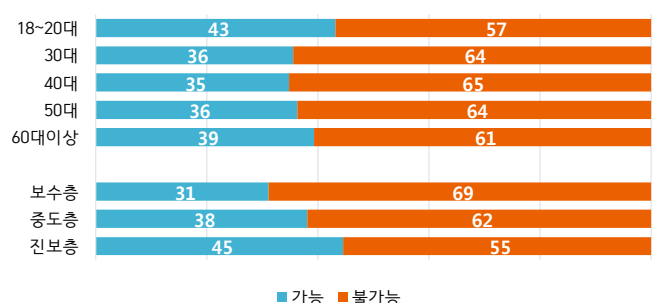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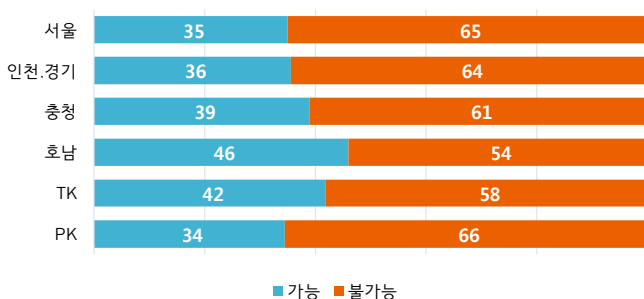
6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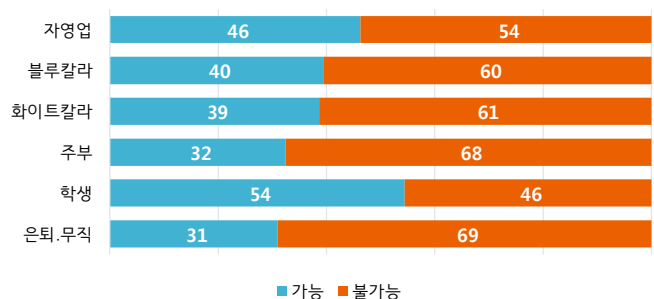
6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6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6.07조사,단위:%)



- ▶ '계층상승의 사다리'가 부러진 사회는 이른바 '금수저, 흙수저'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부정적인 사회임
- ▶ 학생 계층의 믿음처럼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지적임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6월 4일(목) ~ 6월 7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072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2.99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08호(2020.06.25.)는 “**국제 관계**”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